

제주녹색당 제 6기 10차 정기운영위원회

* 일 시 : 2021년 4월 1일(목)

* 장 소 : 녹색페인트

* 운영위원 : 김순애 김영주 부순정 신현정 안재홍 이진아 정화빈 진수은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3/30 기준 428명)

구분	입당수	탈당수	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2월1일~ 3월30일	3	11	-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데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 - 경제적 부담 - 개인사정 - 정치시민으로서 활동을 마감하고자 탈당합니다. 앞으로 정당후원회를 통해 녹색당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 해외유학 및 이주 -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존재를 지켜내지 않고 정치꾼이 되어가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제녹당은 다르려 애쓰는 게 보였지만 그래서 탈당해서도 저는 제녹당에는 연대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녹색당 전체에 대한 젠더 이슈를 다루는 방식과 피해자를 다루는 방식은 환멸을 줍니다. 가해자들로 구성된 녹색당 지도부와 함께하는 게 제겐 고통입니다. - 군 입대로 인한 정치적 중립

2) 조직현황 및 활동 보고<별첨자료 2. p.8 참조>

- 2/7 정책위원회 회의
- 2/15 총회준비위 사업평가 소위 회의
- 2/18 5차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 2/21 정책위원회 회의, 녹녹한 책임기 모임
- 2/23 조직팀 회의
- 2/25 5차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 3/19 논평팀회의
- 3/23 조직위원회 회의, 정책위원회 회의
- 3/27 현미채식모임, 담쟁이 모임

3) 전국위원회 회의 보고:

■ 시간 : 2021-02-20 오후 1시

■ 장소 : 온라인(줌)

■ 성원 : 30명(참석 25/불참 5/참관 5)

■ 논의안건1. 청년녹색당 규약 개정 승인의 건

=> 청년녹색당의 규약 개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한다. (전원합의)

■ 논의안건4. 상별위원회 구성 인원에 관한 규약 개정 승인의 건

수정안 제출(제주 안재홍): 제6조(구성) ① 상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수정안을 전원합의로 승인한다.

■ 논의안건2. 대변인 선임 보고 및 향후 대변인단 체계 구축 관련 의견 청취의 건

=> 당무위원회가 오현화 당무위원을 대변인으로 선임하였음을 보고하고, 대변인단 체계구축과 관련한 전국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당무위가 대변인단 구축 계획을 다듬은 후 전국위원회에 공유하기로 한다.

■ 논의안건3. 제6기 공동대표 선거 재공고 승인 요청

=> 3월 첫째주에 제6기 공동대표 선거 재공고는 하지 않는다.(전원합의)

*추가 의견(서울 이상현) : 성찰과 체계구비도 중요하지만 당 운영이 멈추지 않도록 고안하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과정에서의 우리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여성 단독으로 선거를 치루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을 철회한다.

수정안 제출(당무위 서형원): 제6기 공동대표 선거와 1기 당무위원 보궐선거를 3개월 후에 실시한다.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선거준비TFT를 전국위원회에 구성한다.

*추가 의견(당무위 이하영): 3개월 후라고 하여도 여성 당대표 후보가 나올 지 미지수이므로 3개월 후에 실시한다는 기간을 명시하는 것에 반대한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재석: 21명)

=> 찬성이 과반수가 넘어 수정안이 통과됨.

=> 선거준비TFT 구성은 안재홍, 이하영, 서형원, 이상현으로 구성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참여를 독려한다.(전원합의)

■ 논의안건5. 페이스북 그룹 규칙 및 운영방침 정비를 위한 한 달 사용 중지

온라인관리위원회 요청 내용

지난 10월 14일 이후 온라인관리위원회에서 녹색당 페이스북 그룹에 대한 관리 업무를 맡아왔으나,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문제속에서 공론장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당원들의 피로감 호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관리위원회는 2월 16일 오후 5시 당무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한 달간 페이스북 그룹의 게시물 작성 권한을 관리자만 가지는 형태로 페이스북 그룹의 사용을 한시적으로 정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온라인관리위원회는 당무위원 및 참여를 원하는 전국위원과 함께 페이스북 그룹 관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전국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승인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원안에 대한 표결(재석: 19명)=> 찬성이 과반수가 넘어 원안이 통과됨.

*반대 의견(울산 남교용): 온라인관리위원회에서 개인의견을 임의로 막을 수 없고, 한달 후에도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문제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상별위원회를 통해 다룰 수 있다.

*기권 의견(경남 이정옥): 안건에 대한 찬반기권이 아닌, 페이스북 그룹에서 있는 이야기를 온라인관리위원회가 얼마나 관리할 수 있을 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서 판단할 수 없다.

■ 논의안건6. 후원당원 제도에 대한 논의

=> 논의 의견을 토대로 추후 자료를 준비하고 지역당과 소통을 하여 재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전원합의)

■ 현장발의안건. 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출의 건(성평등위원회 발의 안건)

성평등위원회 발의 내용

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 2인의 사퇴에 따라 신임 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당규 제 3 조 (부문별위원회의 구성) 에 따르면 “부문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때 부문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당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성평등 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임시회의에서 박선희, 이상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신임위원장을 선출을 요청합니다

=> 재석(17명)의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상정함.

=> 발의안건을 전원합의로 승인한다.

■ 차기 전국위원회 일정 => 2021년 4월 4일(일) 오후 1시

4) 대의원대회 정리

I. 2021년 사업보고(안)

1. 목표

- 1) 2022년 대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태세 구축 및 한국 정치의 혁신 추진
- 2) 당 조직의 근본적 혁신과 당내 평등 문화 구현을 통한 신뢰 회복
- 3) 기후위기 극복과 대감염 시대의 생존을 위한 녹색 생태정치 구축, 강화
- 4) 빈곤, 양극화,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는 정치운동 강화

2. 2021년 중점사업

- 1) 2022년 대선, 지방선거 대응과 한국 정치의 혁신을 위한 정치사업
 - (a) 민주화 세대 이후의 정치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정치 운동
 - (b) 녹색당의 독자적 성장을 위한 실천과 정치 혁신을 위한 연합 정치를 병행하는 유연한 정치 전략->“연합정치를 추진할 경우 지난 선거연합에 대한 평가와 전당원 토론 등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한다”
 - (c)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향한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 수립, 진행
- 2) 당 조직 개편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 3) 논평 등 당 입장 발행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업
- 4) 온라인 민주주의 구현과 IT역량 구축을 위한 사업
- 5) 평등문화를 구현하는 정치 공동체 만들기 사업
- 6) 지구녹색당 등 국제 연대 사업
- 7) 당원증대와 재정사업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 1) 지난 주요사업
 - 2/2~2/5 제2공항 저지를 위한 정당연설회(제주시청)
 - 2/6 총회 준비 당원토론회(제주녹색당 운영 구조 및 규약 검토)
 - 3/6 2021 제주녹색당 정기총회
 - 3/8 카드뉴스 발행(유니버설 디자인을 찾습니다)

- 3/9 천막당사 짐 정리
 - 3/13 녹색당 전국대의원대회
- 2) 연대활동
- 2/3 도청 앞 캐노피사건 신고
 - 2/3 제주 3.8 여성대회 준비 회의
 - 2/7 제주시민 기후행동 참여
 - 2/10 제2공항 여론조사 관련 전단지 작업
 - 2/16 지속가능 학교급식조례 제개정 추진위원회 회의
 - 2/18 탈핵 도민행동 워크숍 및 회의
 - 2/25 후쿠시마 10주기 탈핵도민행동 피케팅
 - 3/3 선흘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기자회견, 정치개혁 제주행동 회의
 - 3/5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 기자회견
 - 3/8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도의회 의장 면담
 - 3/10 도청앞천막촌 정리
 - 3/11 기후위기 대응 채식급식조례 제개정 추진위 출범 기자회견, 311 후쿠시마10주기 탈핵도민행동 피케팅,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의, 도청앞천막촌 회의
 - 3/16 국가통합위성센터 반대 기자회견
 - 3/17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회의,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회의
 - 3/20 제2공항 반대 도민결정권 사수 촛불집회
 - 3/23 기후위기 시대와 채식 학교 급식의 방향(온라인 강연)
 - 3/25 제주3.8여성대회 평가회의
- 3) 논평 및 보도자료
- 2/18 생색내기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비판
 - 2/20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 철회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 2/24 고김기홍 추모논평
 - 3/2 개발사업심의회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승인을 불허하라!!
 - 3/4 제주도는 수돗물 유충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3/9 제2공항 백지화 천막투쟁을 일단락 짓는 제주녹색당 입장문
 - 3/11 원희룡 도지사는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 3/17 원희룡 도지사는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3. 회계보고(별첨자료1 참조): p.6

4. 논의 안건

안건 1: 운영위원장 선출

안건 2: 소모임과 의제모임 지원 기준 정리

- 논평팀은 의제모임이 아닌 소모임 위상을 가지기로 결정
- 개정 규약의 소모임 지원 관련 내용은 제13조 3항 “제주녹색당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모임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다”
- 기존에는 모임이 진행된 달에는 3만원~최대 6만원까지 지원

안건 3: 4월초 당원들에게 질문지 발송 관련 내용 공유 및 추가 내용 논의

제안:

- ① 의제 모임 참여 의사 확인: 농업 의제모임/현미채식 의제모임/견고 싶은 제주 의제모임/쓰레기 없는 제주 의제모임
- ② 희망 교육: 제주 농업/제주 에너지/기후위기/여성/인권
- ③ 당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지도 제작을 위한 정보 취합

안건 4: 당원들에게 제주녹색당을 운영하는 당원들 소개와 인사말 전달

- 운영위원장/운영위원/조직위원장/정책위원장/사무처장 명단 및 사진, 간단한 인사

안건 5: 운영위원 필수 교육

- 담당 주체, 일정, 내용 구성 등
- 3월 대의원 대회 통과된 내용 공유 필요
- 운영위 워크샵 제안
- 조직운영 관련 교육
- 서영표님 제주녹색당 논문 초고 토론

안건 6: 제주녹색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 신설 관련 의견 취합

- 핵심 의제 혹은 이슈 의제를 토론하는 제주녹색당 온라인 공론의 장
- 로그인VS비로그인

안건 7: 당원 확대 및 관리 방향 및 실천 방법

안건 8: 마음치유, 마음 돌보기 관련 쿼어팀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

안건 9: 총선 토론 일정

기타안건: 세월호 연대 기금 요청

<별첨자료 1> <2021년 2월 결산>

수입	이월금	11,859,709
	정기당비	1,543,290
	특별당비	
	후원금(개인 및 기타)	200,000
	그밖의 수입(캐시백, 이자 등)	1,814
	총수입	13,604,813

지출	인건비	인건비	사무국장	800,000
			회계/홈피	200,000
	소계			1,000,000

사무실설치운영비	공과금 및 유지비		
	물품 구입비		
소계			
정책개발비	정책위지원	회의비	100,000
		토론회 등 연구지원	
	연대사업비	분담금	
		기타	
정책홍보비	정당연설회/폐북홍보등	110,386	
소계			210,386

조직활동비	의제/지역모임 및 기타 회의비	의제/지역모임	180,000
		기타 회의비	69,000
	회원사업비	줌이용료	18,552
	교육/행사 사업비	대관료	168,000
	문자전송		77,000
	여비		4,600
	위원장활동비	안재홍, 1-2월	200,000
	홍보물편집비	박진호	100,000
기타(잡비)	문자알림	300	
소계			817,452
적립금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1-2월)	123,800
예비비	예비비	조의금&화환	170,000
총지출			2,321,638
잔액			11,283,275
퇴직금 총적립액			1,097,400

<2021년 3월 결산>

수입	이월금	11,283,175
	정기당비	1,531,200
	특별당비	
	후원금(개인 및 기타)	
	그밖의 수입(캐시백, 이자 등)	1,495
	총수입	12,815,870

지출	인건비	인건비	사무국장	800,000
			회계/홍피	200,000
		소계		1,000,000
사무실설치운영비	공과금 및 유지비	임대료&냉방기		1,500,000
		천막철거 & 모임방		49,250
		소계		1,549,250
정책개발비	정책위지원	회의비		100,000
		토론회 등 연구지원비		
	연대사업비	분담금		300,000
		기타(차제연현수막)		30,000
	정책홍보비	페이스북		1,504
		소계		431,504
조직활동비	의제/지역모임 및 기타 회의비			90,000
				81,900
		문자전송 등	줌 이용료	
	여비			
	위원장활동비			
	홍보물편집비			100,000
	기타(잡비)	문자알림		300
조직위원회	교육&회원사업비	상반기예산지급		1,500,000
		소계		1,791,307
적립금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66,400
예비비	예비비	하승우선물&조의금		151,000
		총지출		4,989,461
		잔액		7,826,409
		퇴직금 총적립액		1,163,800

<별첨자료 2 의제모임>

모임이름	정책위원회		참석인원 (당원+비당원)	5
만남 때	2021. 2. 7. 20:00		만남 곳	줌
만남 이들	당원	재홍 희준 선자 순애 민규		
	비당원			
이끈 이(지기)	안재홍	지원 / 참관		
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p>1. 근황 토크</p> <p>2. 2020 정책위 활동 각자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위 활동을 하면서 정책 마인트 강화, 정책 자료 보강, 구체적 정책 생산 등의 성과가 있었는지 회의, 효용감 있는 활동 못한 것 같음 - 정당의 정책을 만드는 수준이 아마추어라는 고민이 듬 - 무엇을 해야할지,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지 막막. 구체적인 정책 생산의 어려움 - 학자적인 완결성을 가진 정책을 생산하기 보다 시민 눈높이에서 정책 생산 필요. 개념 지향을 분명히 하고 이후 당원 토론, 시민 토론으로 풍부해져야 - 올해 정책 윤곽이 잡히면 당원 워크샵 등을 통해 포인트 잡아가는 작업 유효 <p>3. 2021 토론회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토론회는 자문 역할로 기능 - 전국당 혹은 지역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의 관계 맺기 가능 - 전문가토론회는 각 주제별로 1회 이상 진행 - 전문가토론회(초안 전 후)-정책 정리-당원에게 오픈 프로세스 - 정책 생산시 현장 목소리 청취 - 원희룡 공약 중 괜찮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 차용하는 방법? - 공약 틀을 갖춘 후 당원들 시민들 의견 듣기, 여력이 있다면 시민사회단체와 의견 교환 관계 형성 필요 <p>4. 추가 연구 필요한 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DC, 특별법: 정책위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 총준위에 제안 - 제녹당 2018 지선 정책 전체적인 검토 필요(하반기에 진행) <p>5.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조례 작업에 정책위원장이 같이 참여해서 진행 예정 - 의제 모임 지원: 농업(선자) 의제 모임 꾸려보자, 기본소득 의제 모임은 고민, 비가림 연구 주제를 교통으로 변경 부분 고민 			
다음 모임은	<p>2. 21(일) 10:00 장소 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사업계획 검토, 에너지 정책 초안 점검, 농업정책 점검, 제주형 경제정책 아우트 라인 논의 			
적은 이	김순애			

모임이름	정책위원회		참석인원	4명 (당원)
만남 때	2021. 2. 21.(일) 10:00		만남 곳	비건테이블 바람
만남 이틀	당원	안재홍, 이선자, 노민규, 김순애(사무처)		
기록	김순애	지원 / 참관	김순애	
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p>1. 담당 의제 정리: 재홍-에너지, 선자- 농업 순애-사무처 지원으로 참가하고 있지만 의제 담당 고민 민규-비가림 의제 선정: 교통VS해양(교통은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고민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정책은 도시 정책과 같이 가야 함 - 제주도로정책에 들어가는 비용 분석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용도로 사용가능한 범위 분석 - 재홍이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은 자료 넘길 것 - 전체적인 도시 비전과 교통 비전-순애/비가림 같이 작업: 지방채, 도로 예산 등 분석 (2018~2022) - 걸기 좋은 제주, 차 없는 제주, 걷고 싶은 제주(공동체를 살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도시) - 공간철학 강의/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되면 좋을 듯 - 국가사업과 연동되어서 국가 프로젝트비 <p>2.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선거 포인트: 청년/경제(청년 일자리 정보공개 세부청구) - 농업: 농업 의제 모임을 통해 정책을 더 다듬어갈 예정 - 에너지·기후/ 농업/ 경제/ 교통·도시 네가지 분야로 정리해볼 것 - 정책 생산되는 데로 당원 소통진행 			
다음 모임	3.23 오후 1시 비건테이블 바람			

모임이름	정책위원회		참석인원	4명 (당원)
만남 때	2021. 3. 23.(목) 13:00		만남 곳	비건테이블 바람
만남 이틀	당원	안재홍, 이선자, 노민규, 김순애(사무처)		
기록	김순애	지원 / 참관	김순애	
나눔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p>1. 재홍이 에너지 관련 준비한 제주녹색당 정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이 주장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자 - 2030 탄소 배출 제로의 에너지 시스템 구축 - 탄소배출 없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유통 - 생산과 소비, 유통의 혁명 <p>2. 의견 나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에너지 생산 현황과 2030 에너지 자립의 로드맵이 추가되었으면.(현재 2030 에너지 자립, 탈석탄 등의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가 가시화 되어야) - 화석연료 기반 발전을 어떻게 감소시켜갈 것인지, 육지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추가되면 좋겠다. - 아주 디테일한 자료까지 정리해서 보강하긴 어렵다. 큰 틀에서 정리 - 생산과 소비 유통으로 구성한 방향은 좋음 - 생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면 좋겠다. - 체계가 문제인데 현재 국내 에너지 관련 이슈는 에너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만 있다. - 에너지 총량제(파시즘적 요소 없을까VS미래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에너지 자립과 탈 탄소 시나리오 - 지난 12월 발표했던 자료와 통합해서 자료 구성하면 좋겠다 - 저장 장치에 대한 언급 필요하지 않을까? 저장장치 관련해서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 되어서 녹색당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부나 업체에서 가져갈 것 <p>3. 희준님 탈당으로 경제 부분 공백 →민규가 경제 부분 맡기로 하고 순애가 도시와 교통 담당</p> <p>4. 농업 등의 의제모임은 사무처에서 전당원 대상으로 의제모임 안내 및 참여 신청 받고 2명 정도의 당원이라도 참여 의사 있으면 시작할 것</p>			
다음 모임	다음 모임 날짜: 4.15 (10시)/4.22(목) 지구의 날 전당원 에너지 토론회(정책위 주관)			

2021 녹색당 의제모임 페미올레담쟁이 4월 활동보고서

모임이름	페미올레 담쟁이	참석인원 (당원+비당원)	4(당원3)
만난 때	2021.3.27.(토)	만난 곳	용수 포구
만난 이들	당원	최희정, 양인숙, 이은정	
	비당원	최신자	
이끈 이(지기)	최희정	지원 / 참관	
나눔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p>☆ 걸기 : 올레 13코스 출발 : 10시 35분 용수 포구 용수 포구에서 시작해 고목숲길, 고사리숲길, 낙천리 의자마을(중간스탬프 지점)까지 9.1km 코스를 걷다. 비도 오고, 저녁에 시청집회 참석을 위해 조금만 걸기로 했는데 낙천리 가까이 오자 장맛비 수준으로 비가 쏟아졌다. 점심은 용수 포구로 돌아와 신자님 차안에서 인숙님이 만든 유부초밥과 주먹밥을 먹었다. 조류독감과 사유지문제로 코스가 변경되어 아름다운 특전사숲길을 걸지 못했다. 해마다 조류독감 위험이 커지고 갈수록 사유지 폐쇄가 일어나는 것도 제주 난개발과 잇달아 있다. 도착 : 12시 40분 낙천리 의자마을</p> <p>☆ 독서토론 : 성산일출봉 스팟비, 3월의 책 「아주 오래된 유죄」(김수정)</p> <p>* 책 선정 이유 : 저자는 호주제 및 낙태죄 위헌소송,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이주 여성 인권,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미군기지촌 국가 배상 소송 등 20년간 여성인권을 위한 변론을 펴왔다.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사람들의 살아 있는 이야기들이 한국현대사와 페미니즘 핵심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p> <p>* 밑줄 긋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유발한 성적충동의 결과가 아니라, 약자에 대한 폭력이다. - 집안의 ‘대잇기’나 국가의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과학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성의 성과 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제대로 된 연구와 정보 제공 없이는, 여성이 진정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임신과 출산이란 있기 어렵다. - 대한민국 국군은 과연 여성을 징집할 능력이 되는가, 수시로 발생하는 성폭력·성차별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아니, 감당할 의사가 있는가. -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의 금전적 가치를 재평가하거나 가정 내 돌봄노동을 사회화하는 수준의 논의에 머무른다면,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돌봄노동은 더욱더 여성에게 귀속될 것이며 노동에서 성차별적 구조를 극복하기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p>* 감상이나 비평, 생각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라 가볍게 읽기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판례와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가 주는 힘으로 순식간에 읽었고 그 어떤 페미니즘 이론편보다 울림이 컸다. - 1부의 성범죄 사례 부분은 분노, 절망, 의문 때문에 읽어내기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과 인간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기지촌 여성문제, 난자채취 등 예나 지금이나 여성의 몸을 대하는 방식은 똑같다. 가난한 여성은 더욱 차별받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 - 부정의가 승리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늘 져야 하는 상황에 분노와 절망을 느꼈지만, 		

방관자적 삶을 살았던 나를 반성했다. 세상이 나아지려면 낙태문제에 있어서 남성의 의무와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아들들에게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해왔다.

- 한 사건 한 사건마다 눈에 그려지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이 약자를 어떻게 대해왔던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고 변하고 있다. 그것은 여성의 굴레와 차별, 억압에 맞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잘못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힘 덕분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울지말고 물자"(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대사중에서).
- '혼인과는 무관하고 혈연관계도 아니지만 생활공동체로서 가족이 된 사람들이 법의 보호 바깥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다'. 보이지 않는 가족들의 법적 권리를 위해 생활동반자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포함해 누구나 가족을 구성하고 선택할 권리를 갖는 것이 인권의 핵심이 아닐까.



올레 13코스

다음 모임은	2021년 4월 25일(마지막 일요일), 4월의 책 「보이지 않는 여자들」(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
적은 이	양인숙(총무)

모임이름	제주 녹색당 조직위원회		참석인원 (당원+비당원)	4(당원)
만남 때	3월 23일 18:00		만남 곳	제주녹색당 모임공간
만남 이틀	당원	그린씨, 김선, 김영란, 부순정, 진수은		
	비당원			
이끈 이(지기)		지원 / 참관		
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p>1. 서기 선출 : 고춘자-그린씨-김선-부순정-진수은 순서로 돌아가면서. 오늘은 고춘자가 서기.</p> <p>2. 조직위원회 운영</p> <p>1) 예산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총무): 김선, 예산 집행 및 영수증 관리 -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직위원회의 총 예산 300만원을 상/하반기 각각 150만원을 수령하여 반기별 집행 수령시 반기 예산안을 사무처에 제출. ② 조직위원회 예산은 부순정의 개인통장을 통해 관리. 예산 수령 전에 통장잔고 0원으로 만들기 <p>2) 조직위원회 정기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화요일 오후 여섯시 - 줌 회의를 적극 활용하며, 필요 시 오프라인 회의를 한다. <p>3) 신규 당원 조직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위 내에서 당원 조직화에 관한 이야기는 빠진 채 교육과 당원 역량강화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문제다. - 조직위원회 회의를 더 자주해야 한다. 행사 후 평가회의, 신입당원 모집을 포함한 조직 관리에 관한 논의. 향후 행사 등에 신입당원 모집을 위한 고민과 활동을 함께 해야 한다. - 조직위에서 먼저 당원 확대를 위한 목표, 계획을 수립하고 제녹당 운영위 및 사무처에 알려서 도움을 요청한다. - 4월 20일 회의에서 조직관리(신입당원 모집 등)에 대한 회의를 한다. 총회 평가서에도 나와 있듯이 녹색당다운 조직관리, 당원 모집이 필요. - 다음 회의 때 부순정이 당원가입 경로, 현황에 대한 분석 브리핑하고 함께 분석한다 - 부순정: 4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도 조직관리에 대한 내용을 발의하여 다룰 수 있도록 한다. <p>3. 4월 당원의 날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첫 당원의 날은 3월 예정이었으나 강사 일정으로 4월로 변경 - 날짜: 4월 24일 토요일, 강연 주제: 포스트 코로나와 페미니즘 - 시간과 장소는 현재 미정 - 장소 후보지: 도민의 방, 하나은행 3층,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등 - 장소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이가 있는 당원, 멀리서 오는 당원이 있으므로 주차, 엘리베이터, 돌봄 환경 등 고려 ② 올해 제주시에 2회, 서귀포에 2회 당원의 날 행사 전용 장소를 정하자 			

- 담당자: 이번 행사는 부순정이 강사 및 장소섭외. 김선: 채식다과 준비
- 해야 할 일
 - ① 코로나로 모임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전 신청을 받아야 함: 일정 및 장소 확정 후 신청 폼 작성 및 관리
 - ② 제녹당의 페미니즘 관련 강의 소식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고민: 생태적인 방식
 - ③ 행사 1주일 전에 행사준비 및 점검을 위한 조직위원회 회의
: 4월 20일 오후 여섯시, 제녹당 모임공간

4. 올해 당원의 날 주제 선정

- 1) 6월 당원의 날: 기후위기와 해양 생태(풍력 에너지+ 돌고래)
 - 핫핑크 돌핀스에게 교육 받기: 주제 및 타이틀, 키워드는 핫핑크돌핀스에게 맡기기
 - 담당자: 김선 (핫핑크돌핀스 섭외, 장소, 날짜, 키워드)
- 2) 9월 당원의 날: 기후위기와 제주농업
 - 선자님이 현재 준비 중인 농업관련 의제모임이 있는데, 향후 의제모임이 만들어지고 운영위에 들어오면 그때 당원의 날에 대해서 같이 준비한다.
 - 담당자: 그린씨
- 3) 12월 당원의 날: 기후위기와 에너지
 - 강사 후보 리스트: 김동주 당원, 오영덕 당원이 말했던 독일에서 유학한 에너지 관련 교수, 정책위 추천 받기
 - 담당자: 진수은. 전국당에서 지역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므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제녹당에 적용/활용
- 4) 당원의 날에서 기후위기와 채식 주제를 다루는 방식
 - 현미 채식 모임을 3월 말에 재개하려고 하는 중이나 현재 제녹당 내에서 채식은 주제로 당원의 날을 준비하기는 어렵다. 채식은 말보다 실천으로 접근.
 - 앞으로 모든 제녹당 행사 때 채식 실천을 공식화 하고 음식은 모두 채식으로 준비한다. 채식인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채식이 기본값. 동시에 채식 체험단을 꾸준히 운영하여 당원들이 지속적으로 (기후위기와) 채식에 체험하고 당의 행사 때 당원들의 채식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주 내에 비건 빵 등 채식 식당 및 업체 목록을 작성하여 당원에게 안내하고 홍보한다.
 - 제주 내에 청년을 중심으로 조직된 채식 단체(제채기, 비건 페스티벌)와 협업한다.
 - 행사 채식 다과 담당자: 김선, 채식 체험단 운영: 부순정
- 5) 당원의 날 공통
 - 다음 당원의 날 행사 주제에 관련된 자료(영상, 책 등) 미리 추천하기: 언제, 어떻게?
 - 당원의 날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다음 당원의 날 주제를 미리 안내한다.
 - 당원의 날 주제는 당원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현안과 미시적인 안건 위주로 하자

5. 신입당원교육(녹색당원 의무교육)

- 1) 5월 신입당원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 총회 전 토론회 때 공유했던 프랑스, 독일 녹색당의 역사 + 제녹당의 역사 + 제주 현안 및 관련 제녹당 활동(비자림로 활동 및 의제모임 안내 포함) 공유
 - 온라인 사전교육 준비는 운영위원회에 제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한다(담당: 부순정)
 - 오프라인 교육: 정책위와 협의하여 주제 선정

	<p>2) 신입당원교육의 기본 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름 등 현장에 가서 신입당원들이 생각과 느낌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어려운 내용은 사전에 문서 등 자료를 공유하고 오프라인 교육은 당원을 초록으로 물들이자. 실천이 중심이 되는 자리로 만든다. - 당원교육은 당원들이 토론하기보다 당원들이 관심 있는 의제모임에 들어가서 토론하도록 연결고리가 되는 자리로 만든다. 교육에 처음 참석한 당원이 그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 기존에 환경단체들이 기획한 행사에 제녹당이 함께 하는 형태로, 당원 참여를 준비하는 것도 생각해본다. 안재홍 님이 이번에 학교채식급식강연을 홍보했던 것처럼 제녹당(조직위) 차원에서 홍보하는 형태(난점: 전담할 인력 부족) - 조직위원회의 취지가 어려워도 당원교육을 준비하는 데에 있으므로 어렵지만 반드시 토론해야 할 주제는 다루도록 힘쓴다. - 당원의 날/신입당원교육 후에 행사 때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여 정책위 등에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한다. <p>3) 10월은 신입당원 교육: 선거를 주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그린씨 의견)</p> <p>5. 제녹당 홈페이지에 조직위원회 카테고리 운영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테고리 추가는 조직위가 올려야 할 게시물이나 자료가 있을 때 추가하는 게 좋다. 현재는 딱히 없음. - 조직위에서 제녹당 내에 행사 등 온라인 홍보를 책임 있게 하자. 홍보물 작성, 게시 및 적극적인 공유, 활동 후기 작성, 댓글 달기 등. 기존 채널(홈페이지, 페이스북) 활용. 담당자에게는 소정의 인건비를 지급할 방법도 함께 고민. <p>6. 다음 회의 전까지 할 일</p> <p>1) 부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당원의 날 강사 연락 및 장소 섭외, 24일 교육 시간 확정 - 4월 1일 운영위원회에 조직관리에 관한 안건 발의 - 상반기 조직위 예산을 수령할 통장 0원으로 비워서 총무 김선에게 전달 - 5월 오프라인 교육 주제 정책위와 협의 <p>2) 모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24일 교육 관련 사전에 참고할 자료 목록(영상, 책 등) 추천 및 정리 - 안내 및 공유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 제녹당의 페미니즘 관련 강의 소식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고민 - 채식 식당/업체 정보 수집/정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 조직위 단톡방에서 논의 <p>3) 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24일 당원의 날 장소 결정되는 대로 담당자 지정하여 참가 신청 폼 작성하여 관리 - 조직위 단톡방에서 논의
다음 모임은	4월 20일 오후 여섯시, 제녹당 모임공간
적은 이	김영란

모임이름	논평팀 의제모임	참석인원 (당원+비당원)	5(당원5)
만난 때	2021. 2. 16	만난 곳	ZOOM
만난 이들	당원	순애 영경 비가림 멀치 상영	
	비당원	-	
이끈 이(지기)	김순애	참관	
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p>1. 2020년 돌아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가 생겼을 때만 내보내는 사후 논평과 더불어 선제적으로 녹색당이 질문을 던지고 여론을 형성하는 논평 필요(논의를 집중할 여력이 부족한 현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 녹색당의 기초를 잘 알고 논평을 쓰는 것인가 질문 - 현실적인 여건상 팀 구성원들이 논평을 제대로 검토하기 어려움 - 기후위기에 대한 논평 아쉬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지속적으로 다루지는 못한 상황. 기후정위의제모임 구성원(진수은)에게 논평팀 활동 제안해보자 - 이상적으로는 제녹당 의제모임이 탄탄해지고 그 의제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의제모임에서 논평 기초를 잡아갈 필요 있음 - 첫 회의에서 각자 역할을 정했는데(상영: 동물테마파크, 학생인권, 교육, 동물권/문화: 군사기지, 강정발 소식, 여성문제, 인권(생명감수성)/비가림: 평화, 에너지, 노동/순애: 제2공항 환경/개발, 민주주의(제주도)) 그러다 보니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을 달게 되는 경향 있음 - 조직력에 비해 많은 논평 발간했다. 논평 주제 및 시기, 작성된 논평 등에 대한 코멘트가 없는 현상을 보면 팀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의문 <p>2. 2월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22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에 국가위성센터 설립관련 도유지 매각안건 상정되는데 이에 맞춰 논평 내보낼 것 - 제2공항 여론 조사 끝나는 시점에 논평 내보낼지 의견 나뉘었으나 최종적으로 내보내지 않기로 함(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경우, 시간을 두고 제2공항이 불가하다는 입장의 논평 내보낼 것) <p>3. 추후 논평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사회에서 위협이 되거나 아주 잘못된 것에 대해 입장을 내야 한다(ex 강정해군기지 진입도로: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의 일환이 제주의 군사기지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옴) - 상영님이 이장 활동을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현실에서 이어질 것이기 마을 민주주의 제주 민주주의로 영역을 넓혀 논평 작업 - 2022 지방선거를 고민하면서 농업 노동 여성 등의 이슈에 대한 당의 입장을 고민하고 논평 발행 필요 <p>4. 차기 모임 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경님이 물리적으로 제주를 떠나면서 모임지기 변경 필요 - 비가림에게 제안(미정) 		
	다음 모임은		
적은 이	김순애(사무처)		

모임이름	논평팀 의제모임	참석인원 (당원+비당원)	4(당원4)
만난 때	2021. 3. 19	만난 곳	ZOOM
만난 이들	당원	순애 영경 비가림 멀치	
	비당원	-	
이끈 이(지기)	김순애	참관	
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p>1. 논평팀 지기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현실적으로 모두 어려운 상황 - 당분간 논평팀은 모임지기 공석으로 가고 의제모임이 아닌 논평을 쓰는 당원들의 소모인 형태로 운영하기로 함 <p>2. 당원들로부터 논평에 대한 요구가 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요구를 받아들이고 작성할 것인가? 논평 수정의 경로, 운영위와 논평팀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원 요구가 왔을 때 논평팀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 당장 써야하는 논평인지 검토 후 당원에게 사무국을 통해 피드백 - 논평팀이 독립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논평팀이 지금 이상의 책임감을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 - 장기적으로 논평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가지는 것으로 함 - 논평은 당의 글이기에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문장을 다듬어 나갈 것 - 작성된 논평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문장과 맥락 등을 수정 후 제안할 것 <p>3. 3월 카드뉴스 주제 선정(대명동물테마파크, 수돗물 유충, 원희룡-제2공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테마파크는 지난 개발심의위원회 불승인 등의 성과가 있었고 제2공항은 현재 워낙 이슈화가 많이 되어서 수돗물 유충으로 선정 - 제2공항과의 연결 고리를 짚어가면서 카드뉴스 텍스트 구성할 것 - <p>4. 월 1회 모임 정례화하자. 4월 20일 전후로 논평팀 회의 진행</p>		
	다음 모임은		
적은 이	김순애(사무처)		